

함평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총 46개 750억 원 사업 발굴 신청키로 스마트팜 ICT융복합·농촌협약사업 등

함평군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총 46개 사업 750억 3천 1백 만 원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군은 농업전반의 디지털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업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과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공간 복합화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농촌

협약사업 등 46개 사업을 발굴·신청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 42개 사업 654억 9천 6백만 원, 축산분야 2개 사업 89억 4천 4백만 원, 임업분야 2개 사업 5억 9천 1백만 원이다.

지난 10일 군은 대학교수, 유관기관장, 농·축협·산림조합장, 농업인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28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안 및 2021년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농정방향의 적합성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의결된 사업은 전남도와 농림



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2년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소득 안정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 ICT를 기반으로 농업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 국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목포시, 기업유치에 고삐 당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국 1위 차지...지속 조성 전 공무원 세일즈행정 이어 '부서별 분양책임제'

목포시가 기업유치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업유치와 관련해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과 기업에 대한 입주환경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기업체감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시는 대양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용지 매입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업종배치, 신규업종 추가, 필지분할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분양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신·증설 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을 지원하고 기업 입주 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기업수요에 맞춰 대양산단 해수배출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추진했다. 목포시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대양산단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월 현재 9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완전 매각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도 신발건을 바짝 조이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올해도 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분양이라는 결과물을 거둬야 하는 도전대에 올라서었다.

기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육성이다. 대양산단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1호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됨에 따라 서남해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제 대양산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건립(450억원)도 이를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부와 전라남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대양산단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의 분양과 입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도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가공공장, 연구개발(R&D)센터, 국제수산물거래소, 냉동창고 등 수산식품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이 같은 탄탄한 수산식품산업 인프라와 더불어 다른 산단에 비해 해수사용이 용이한 입지 강점 등을 적극 부각해 수산식품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 공무원의 세일즈행정도 이어가 올해도 부서별 분양책임제를 운영한다. 부서별 분양책임제도 분양률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쳐 2018년 9월 이후 48필지(21만 4,418㎡)가 공무원의 노력으로 분양됐다. 이와 함께 시민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시민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과 모든 공무원의 노력이 쌓여 어느덧 대양산단 분양률이 90%에 육박했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대양산단 분양은 늘 어려움 속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난관을 극복하며 건설하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총력

소 매매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해야

영암군은 소 브루셀라병 감염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검사 대상은 한·육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12개월 이상 암소 13,000여두이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명의 공수의사를 채

혈요원으로 지정했으며 채혈 후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유·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검사 결과에 따라 브루셀라병 감염이 확인된 개체

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하고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3회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발생농장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해 질병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의 발판이 될 수 있게 해당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 구입 시 반드시 국가동물방역 시스템과 축산물 이력제에서 해당농장 질

병 발생 이력과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확인 후 구입하고, 30일 이상 격리사육 후 가축방역기관 검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합사하고 농장 소독 및 예방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사산 등 의심축 발생 시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061-430-2142), 군 동물방역팀(☎061-470-2163)으로 신고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광지사, 무료측량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염현섭)에서는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효행대상 수상한 다문화가정의 주택 신축 예정 부지에 지적경계 무료측량을 지난 10일 지원하였다.

이번 무료측량은 2006년부터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 LX. 업무역량 나눔사회공헌 봉사활동'으로 고유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적 사회

공헌 실현의 활동의 일부이다.

염현섭 지사장은 "행복나눔 무료측량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군에서는 최근 타 기관에서 효행대상을 수상한 다문화가정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개선해주기 위해 전라남도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신축매칭그랜트사업을 신청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에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관내 어가 감태 포장재 지원

무안군은 3월 초 유통 활성화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무안의 대표 수산물인 감태 포장재를 제작·공급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작년 감태 생산량은 154톤으로 해제면 참매리와 운남면 내동에서 맛 좋은 감태가 생산되고 있으며, 군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감태 생산 어촌계 2곳(26어가)에 비닐과 박스 3만 6천매를 공급했다.

무안 감태는 게르마늄성분이 풍부한 청정 갯벌에서 자라 부드럽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